美관세에도 광주 수출 반등…9억8600만 달러 흑자

지난달 16억4700만 달러 작년비 17.8% ↑
전남은 수출 부진에 400만 달러 흑자 그쳐

미국의 관세조치 등 악재에도 광주지역 4월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남의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역 전체 무역수지 흑자액은 10억 달러를 넘지 못했다.

15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5년 4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0% 감소한 50억3800만 달러, 수입은 2.4% 감소한 40억4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지난달(14억 800만 달러) 대비 29.7%, 작년 동월(11억5700만 달러) 대비 14.4% 감소한 9억9000만 달러 흑자를 내는 데 그쳤다.

4월 말 누계기준으로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14.2% 감소하고 수입이 8.1% 감소해 무역수지는 40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 58억5800만 달러에 비해 31.0%나 급감한 수치다.

광주지역 수출은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3월 13억3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동월 대비 8.0% 감소했던 수출은 지난달 16억4700만 달러로 17.8% 증가했다. 또 수입이 6억6100만 달러로 22.9% 늘면서 9억8600만 달러 무역흑자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수출은 반도체(56.4%), 기계류(51.7%), 수송장비(10.6%), 타이어(8.5%)가 증가했고 가전제품(-34.6%)은 감소했다. 수입은 고무(74.2%), 반도체(29.7%)은 증가했고 화공품(-11.4%), 기계류(-2.3%)는 감소했다.

특히 국가별로 미국이 2.4% 증가한 것을 비롯해 동남아(49.8%), 중국(18.3%), EU(3.7%) 등 중남미(-6.3%)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수출이 늘었다.

반면 전남지역 4월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13.2% 감소한 33억9100만 달러, 수입은 6.1% 감소한 33억8700만 달러로 400만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면서 가까스로 적자를 면했다.

품목별로 수출은 기계류(77.6%), 수송장비(25.5%), 철강제품(3.5%)이 증가했고 화공품(-27.3%), 석유제품(-21.3%)은 감소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양경제청, 인니 진흥센터와 투자 논의
내달 현지 투자유치활동 앞두고 대표단 방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주한 인도네시아 투자진흥센터의 레자 마와스타마 소장을 초청해 산업단지 시찰과 양국 간 투자와 무역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다음달 진행되는 인도네시아 현지 투자유치 활동과 연계해 사전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율촌산단, 광양항, 여수국가산단 등을 둘러보며 광양만권의 산업 인프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레자 마와스타마 소장은 "이번 광양만권 현장방문을 통해 율촌산단, 여수산단 등 산업발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광양만권의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인도네시아와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충곤 광양만권경제청장은 "한국의 기술과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 및 젊은 노동력을 잘 활용해 투자와 산업 협력 분야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

LH-북구, 주거복지포인트 시즌2 '맞손' LH광주전남본부는 15일 광주 북구, 문화신협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따뜻한 주거복지포인트 시즌2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북구와 LH는 '용봉주공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LH와 문화신협은 주거복지포인트 재원을 매칭해 마련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선사 운항본부 임원 간담회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하는 주요 선사의 한국운항본부 총괄 임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여수광양항 개발계획과 2025년 개편된 인센티브제도를 공유하고, 선사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만공사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사들의 원활한 물류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수출입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선사들은 언제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또 초대형 선박 기항 증가추세에 따라 컨테이너부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두 전면 수심 유지준설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형 선박 접안을

위한 편의성 확보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상표 여수광양항만공사 운영부사장은 "이번 간담회는 선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광양항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선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광양항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GGM 노조 상경투쟁에 '일자리 위협' 우려
그룹장·파트장 중심 '상생의일터실천협의회' 호소
"우리는 위탁생산회사…대다수 사원들 동조 안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가 현대자동차 본사 등에서 상경 투쟁을 벌인 가운데 비노조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5일 GGM에 따르면 생산 라인의 그룹장 및 파트장 50여명으로 구성된 상생의 일터 실천협의회(이하 실천협) 위원들은 전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노조의 상경집회에 대한 우려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다.

실천협은 '우리가 할 일은 생산에 전념해 고객사의 신뢰를 쌓는 것이다'는 제목의 유인물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각종 리스크와 세간의 우려를 극복하고 우리의 염원인 2교대 생산체제로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고용안정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희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지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GGM은 고객사로부터 생산물량을 수주받아 운영하는 위탁생산회사다"면서 "상경투쟁 방식이 자칫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사원이 바라는 2교대 체제와 추가 차종을 도입할 수 있는 지름길은 대기중인 주문물량을 계획대로 생산해 우리에게 위탁을 준 고객사로부터 신뢰를 쌓는 것이다"면서 "상경투쟁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사원들은 동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천협은 특히 "우리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 회사출범의 근간인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라는 대전제하에 실효성있는 방법으로 해결할 때 우리의 뜻이 더욱 멀리, 깊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우리는 GGM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든 구성원이 하나된 힘으로 회사를 지켜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GGM 구성원은 687명으로, 이 가운데 노조원은 220여명으로 파악된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이하 GGM 노조)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와 현대차 본사를 잇따라 방문해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정현아 기자 aura@

ECONOMY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현대차, 사우디 국부펀드 합작
첫 생산거점 구축…내년 가동

현대차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손잡고 중동 지역에 첫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

현대차는 14일(현지시간) 사우디 킹 살만 자동차 산업단지에서 반다르 이브라힘 알코라예프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 장관, 야지드 알후미에드 사우디 국부펀드 부총재,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 사우디 생산법인(HMMME)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킹 살만 자동차 산업단지는 사우디 자동차 산업 발전을 목표로 킹 압둘라 경제도시(KAEC)에 신규 조성된 제조 허브다.

HMMME는 현대차가 30%,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70%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 생산법인이다. 내년 4분기 가동을 목표로 연간 5만대 규모의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혼류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건설된다.

현대차는 HMMME에서 전기차 혼류생산을 통해 속도가 빨라지는 중동의 전기차 전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시장 점유율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현재 사우디는 기존 에너지 중심 산업 구조를 제조업, 수소에너지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국가 발전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한전KPS '청렴 원정대' 발족

한전KPS는 최근 나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김홍연 사장과 이성규 상임감사를 비롯한 최고위 경영진이 동참하는 청렴실천 조직 '청렴 탑티어(Top-Tier) 원정대'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CEO와 상임감사를 비롯해 부사장급 및 1직급 이상 부서장과 전국 사업장 고위직도 원격화상 방식으로 대규모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고위 임직원은 올해 반부패·청렴정책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대내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세부실천방안을 논의하는 등 전사적인 청렴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다졌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